

“화합 도모하면서 한쪽 치우치지 않고 일 하겠다”

내달부터 광주사진작가협회 이글 정순에 작가

임기 1년여 동안 갈등국면 치유하고 단합 위해 최선
정기총회서 첫 선…투명하게 운영 신뢰회복에 방점
‘신록 촬영 대회’·‘광주사진대전’ 등 행사 원활 운영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36대 지회장에 정순애 작가(현 부회장)가 결정됐다.

이번 지회장 결정은 전임 회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사퇴하면서 입회 순서에 따라 가장 빠른 정순애 부회장이 회장직(제36대)을 승계했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을 경우 선거를 치르는 대신, 2년 미만의 임기가 남았을 경우 승계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지회장 직대는 1년 반 지회장을 맡아 지회를 이끌게 됐다. 지회장 직분은 지난해 11월 28일 승계했고, 12월 10일께 인수인계가 이뤄진 뒤 사실상 지회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오는 3월 중 중앙 본회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기

전까지는 직무대행이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 지회장 직대는 협회에 25년 전에 입회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 지회장 직대가 회원들과 어울려 처음 만나는 자리인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 광주예총 지하 일방울소리공연장에서 회원 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정기총회는 정 지회장 직대가 두쪽으로 쪼개져 분열됐던 사진협회를 하나로 아우르는 시험대가 됐다는 후문이다.

일단 정 지회장 직대가 단합과 화합, 그리고 갈등국면 치유 등에 목표를 두고 정기총회에 접근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물로, 협회의 단합에 방점을 둔 정기총회 자리가 됐

다는 반응이다.

특히 협회가 분열돼 정기총회 때 그리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갈등국면을 불식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등 분열을 치유하는 것을 제일선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차기 회장과 협회를 잘 관리해 넘겨주는 매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정 지회장 직대는 소감을 통해 “예술계가 예술만 보고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파가 생기는 등 분열이 일어나는데 화합을 도모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회의 일을 하겠다. 이번을 기회로 지회가 단합됐으면 한다”며 “임기 1년여 동안 지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신뢰회복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여한 회원들 일부는 “정 지회장 직대의 진행방식에 대해 역대 총회 중 가장 나았다”면서 “화합을 꾀하면서 공평하게 나간 것 같다. 분열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치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 지회장 직대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가운데 1년여의 임기 동안 ‘신록 촬영 대회’(6월)를 비롯해 내부적으로 가장 큰 행사인 ‘광주사진대전’(6월), ‘전국사진공모전’

(10월) 등의 행사를 무난하게 치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순애 지회장 직대는 사진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방면에서 재능을 펼쳐 보이고 있다.

개인전 3회와 단체전 30여회에 출품했으며 광주 시미술대전 최우수상과 특선 3회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공예사진대전 우수상, 디카시공모전 최우수상 등 다수 수상했다.

그는 사진분야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부 부지회장을 비롯해 빛고를사진문화포럼 이사 및 포아트사진동호회 회장 등을, 미술분야에서 한국미술협회 회원 및 추천작가 등을, 문학분야에서 광주문인협회와 광주시인협회 회원 등을, 기타분야에서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상무로타리클럽 회장 등을 각각 역임했다.

그는 2011년 월간 ‘문학공간’ 시부문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문단에 데뷔, 사진 속씨 외에 글쓰기도 뽐내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광주시립창극단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격주로 전통예술의 미래 관객인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위해 광주예술의전당 국악당 앞 야외무대에서 유치원생 대상 작은 국악 공연 ‘빛고를 아침 꼬마풍류’를 선보인다. 사진은 시립창극단의 ‘열아불결심’ 공연 모습.

아침 햇살 속 전통 창극, 꼬마 관객 만나요

시립창극단, 4월부터 ‘빛고를 아침 꼬마풍류’ 운영

유치원생 관객들 대상 국악당 앞 야외무대서 공연

이른 아침 햇살 아래, 광주예술의전당 국악당 앞 야외무대에서 영유아를 위한 공연이 펼쳐진다. 창극과 민속예술로 꾸며지는 무대는 영유아 관객들이 전통예술을 낯설지 않은 문화로 인식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용호)은 오는 4월부터 격주로 전통예술의 미래 관객인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위해 광주예술의전당 국악당 앞 야외무대에서 유치원생 대상 작은 국악 공연 ‘빛고를 아침 꼬마풍류’를 선보인다.

광주시립창극단은 ‘빛고를 아침 꼬마풍류’를 통해 전통예술이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세대를 잇는 살아 있는 문화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음악회 형식의 이번 프로그램은 취학 전 영유아들이 전통음악, 춤, 연희와 창극을 놀이와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참여형 예술교육이다.

이른 아침 햇살 속 국악당 앞 야외무대라는 개방된 공간을 활용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춘다. 소리와 몸짓, 장단이 살아 숨 쉬는 현장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최소화해 아이들이 연주자와 소리꾼의 움직임에 눈앞에서 보고, 손뼉을 치며 장단을 따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연의 일부가 될 수 있을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춰 친숙하고 간결하게 구성돼 있다. 4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해설이 곁들여진 짧은 논대북 소리, 전

통악기 소개, 흥겨운 장단 놀이, 인물의 성격이 분명한 창극 장면, 함께하는 전통춤과 연희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창극 속 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몸짓과 표정으로 풀어내 아이들은 ‘이야기 있는 소리’로 국악을 접해 이야기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국립국악원 영유아공연 ‘토요국악공연’과도 차별화된 공연으로 민속 전통예술이 중심이 된다.

이번 국악 공연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전통예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이들은 공연을 통해 국악기 소리의 다양함을 체험하고, 우리 전통예술이 지닌 흥과 맛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다.

김용호 예술감독은 “아이들의 웃음과 호기심으로 채워질 이 아침의 작은 무대는, 창극의 미래 관객을 키우는 따뜻한 씨앗이자,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관광 성공 방정식, 사람·운영 시스템이 좌우

정성문 대표 ‘찾아오지 않는 지역관광에는 이유가 있다’ 펴내

“지역관광의 성패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에 달려 있다. 이제 행정은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일하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과 주민이 ‘관리자’와 ‘대상’이 아닌 공동 설계자가 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처럼 집념된 지역관광의 해법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터득했던 정성문 대표(문화관광 R&D 및 콘텐츠 개발·인적역량 개발)가 최근 펴낸 ‘찾아오지 않는 지역관광에는 이유가 있다’(한울)

에서 밝힌 내용이다. 저자인 정 대표는 20여 년간 로컬신문 기자로서 펜과 카메라를 든채 지역 소멸의 위기의 현장을 기록하는 동시에 수많은 만남을 통해 관광이 지역을 지속시키고 성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을 현장에서 찾았다. 더 나아가 저자는 30여 년간 대한민국 로컬 현장을 누비며 길을 묻는 한편, 길을 찾고, 길을 만들어 온 현장 중심의 전략가로서 지속적인 관광의 해법 제시에 주력해온 인물이다.

기자와 연구자, 관광 컨설턴트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은 가운데 현장을 누빈 끝에 내린 결론들이 압축돼 있는 이 관광해법 책은 관광의 성공방정식이 시설이 아닌, 사람과 운영 시스템에 있다는 통찰에서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저자는 전국 어디를 가도 마주치는 출렁다리

와 닭은쫄 전당대, 운영자를 찾지 못한 채 문이 잠긴 시설들을 ‘벤치마킹’이라는 이름 아래 벌여지는 ‘복사-붙여넣기’ 경쟁이자 지역관광판 ‘공유지의 비극’으로 냉철하게 진단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실패가 ‘문’이나 ‘시설’



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와 속도전 속에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 방문을 현장과 데이터 양쪽에서 증명해 나간다.

특히 이 책은 지역관광을 살리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질문을 던진다. ‘무엇으로 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누가 운영할

것인가?’ 등 저자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설보다 해석이 먼저고,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관점의 전환을 역설한다.

그 대안으로 강진의 ‘푸소’와 ‘달빛한옥마을’, 원주의 ‘뮤지엄 산’, 자연과 건축이 결합된 ‘사유원’, 이주도의 ‘1박 3식’ 등 ‘모든 것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된다. 무엇보다 최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저자가 데이터로 증명한 ‘광역관광경계권’ 구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이미 관광 소비자들이 행정구역을 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배후 중심도시의 인프라(Hub)와 인접 시·군의 고유 콘텐츠(Spoke)를 연결하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제안한다.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이 연대만이 지역관광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관광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의 문제이며, 그 성과는 예산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설파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우선 과제 정리…문화도시 중·장기 정책 방향서



광주문화재단, 2년 고심 ‘…정책 가이드북’ 발간

시민 체감·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 5대 과제 제시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전은옥)은 지난 2년간 민·관·산·학·연이 함께 참여, 논의해 온 문화예술 정책거버넌스의 성과를 담은 ‘광주 미래 문화도시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2024~2025년 문화

예술 정책거버넌스 논의 결과와 워킹그룹 연구 성과를 종합해 광주가 지향해야 할 미래 문화도시의 비전과 정책 원칙, 우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장기 정책 방향서다.

가이드북 제작에는 45명의 문화예술 정책

거버넌스 위원과 재단 실무진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분야별 전문가 집필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집필에는 김기곤·정성구·정민룡·양승수·양초롱 위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술적 식견과 현장 경험을 더했다.

현장의 제언에 행정적 실행 방안을 결합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정책 제시를 목표로 했다.

가이드북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화환경 개선을 목표로,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조성을 핵심으로 한 5대 중기 과제를 제안한다.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 강화를 비롯해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방안, 광주지역 예술인 소득 및 복지 체계 설계, 청년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예술 창작 지원체계의 혁신 방안 등을 중기 과제로 내놓는다

정기 과제는 광주 고유의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미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았다.

광주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 전략 및 AI 대표도시 광주, AI예술관 조성 구상, 공연예술 유통플랫폼 구축, 공생공락(共生共樂)을 위한 ‘인문도시 광주’ 실현, 세계 속 문화광주를 위한 국제 문화연대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번 가이드북이 정책결정자와 행정 실무자에게는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고, 현장 기획자와 예술인에게는 사업 기회와 실행을 위한 정책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